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주장 심석희(오른쪽 끝)는 거친 플레이로 악명이 높은 중국 선수들과의 경기에 대비해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석희가 6일 강릉영동대학교에서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다.

강릉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반칙왕’ 중국을 넘는다…캡틴 심석희, 극한 상황 모의훈련

태극전사가 된다

고향서 열리는 올림픽서 주장 책임감
수차례 당했던 중국의 ‘나쁜 손’ 경계
후배들 이끌며 다양한 맞춤전략 실행



2014소치동계올림픽 당시 심석희(21·한국체대)는 ‘쇼트트랙 여제’로 통했다. 그러나 당시 대표팀의 막내였던 그가 짊어진 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여자 1500m에서 저우양(중국)에게 역전을 허용해 은메달을 따낸 뒤 서럽게 울던 모습은 심석희가 얼마나 큰 부담을 느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여자 계주 3000m 금메달의 영웅으로 등극하며 대회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그 부담감은 더 오래갔을지 모른다.

생애 두 번째 올림픽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의미가 남다르다. 고향인 강릉에서, 홈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땀을 흘릴 수 있는데다 주장 완장까지 찼다. 선배 김아랑(22·한국체대)을 보좌하며 최민정(20·연세대)과 김예진(19·평촌고), 이유빈(17·서현고) 등 후배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일까. 6일 강릉영동대 아이스링크와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진행한 공식훈련 때도 진지한 자세를 유지했다. 첫 올림픽을 통해 얻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 또한

심석희의 몫이다. 조해리(SBS 해설위원) 등 선배를 따라다녔던 막내는 한층 더 거칠어진 중국의 ‘나쁜 손’에 대처하는 전략을 연구할 정도로 성숙해졌다.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한 것이다.

중국쇼트트랙은 성적을 위해서라면 반칙행위도 불사한다. 플레이가 거칠다. 심석희도 두 차례나 당한 경험이 있다. 2015~2016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3차대회(상하이) 1000m에서 최춘위의 고의적인 밀치기에 넘어

졌고, 2017쇼파로동계아시안게임 500m에선 판커신이 다리를 잡는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격당하는 아픔을 맛봤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선 철저한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심석희는 “(중국 선수들) 가장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 훈련을 진행했다. 선수들과도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며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릉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스켈레톤 김지수는 다크호스…모두를 놀라게 할 수도 있다”

강광배 감독이 꼽은 짝꿍메달 후보

윤성빈에 버금가는 스타트·코스 이해력
홈트랙 평창선 충분히 메달권 진입 가능

“다크호스지. 다크호스야.”

강광배(44) 한국체대 교수 겸 썰매종목 감독은 한국 썰매의 선구자로 통한다. 1998나가노 동계올림픽부터 2010밴쿠버동계올림픽까지 무려 네 차례 올림픽에 나선 그는 올림픽 사상 최초로 썰매 전 종목(스켈레톤·봅슬레이·루지)에 출전한 ‘썰매 장인’이다. 운동신경이 뛰어난 고교생에 불과했던 윤성빈(24·강원도청)의 썰매 입문을 도운 일화는 유명하다.

그랬던 그가 또 한 명의 짝꿍 스타를 기대하고 있다. 남자 스켈레톤의 김지수(24·성결대)다. 1월 31일 봅슬레이스켈레톤대표팀 미디어데이 당시 “(윤)성빈이와 마틴 두쿠르스(라트비아)를 이긴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겠다”는 소감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그의 자신감이 결코 만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 감독은 6일 김지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다크호스”라고 몇 번씩 되뇌이며 “(김)지수가 정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정말 모두를 놀라게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수는 2017~2018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5차대회(오스트리아



한국 썰매의 선구자로 통하는 강광배 한국체대 교수는 남자 스켈레톤의 김지수(오른쪽)를 윤성빈과 함께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다툰 ‘다크호스’로 꼽았다. 지난달 31일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윤성빈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는 사이, 김지수가 활짝 웃고 있다.

평창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이글스)에서 개인 최고 성적인 7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2차시기에서 전제 2위의 스타트 기록(4초82)도 화제를 모았는데, 이는 스타트 1위 윤성빈(4초80)에 불과 0.02초 뒤진 기록이었다. 이와 같은 페이스면 ‘홈트랙’인 평창에서 충분히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성빈과 마찬가지로 코스 이해도가 뛰어나서다. 봅슬레이스켈레톤대표팀 이용 총감독도 “윤성빈의 상대가 두쿠르스가 아닌 김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게 기록을 통해 나타났다”고 전했다.

평창올림픽은 한국이 썰매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연일 조명 받고 있는 윤성빈의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다. 한 그루의 나무에 사로잡히면 숲을 볼 수 없듯, 특정 선수에 편중하지 않고 여러 경쟁자가 나타난다면 이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김지수도 그 경쟁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스타트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정작 주행능력이 부족해서 많이 좌절했다. 3년간 그랬지만, 이번 시즌에는 달랐다. 자신감을 얻었다”고 각오를 다졌다.

강릉 | 강산 기자

숫자로 보는 평창동계올림픽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스포츠는 언제나 선수들이 창조하는 숫자로 기록을 남긴다. 23번째 겨울 대축제의 탄생을 눈앞에 둔 2018평창동계올림픽 역시 다양한 숫자들로 설명이 가능하다.

1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첫 번째 동계올림픽이다. 1988년 서울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린 뒤 30년 만에 국내에서 겨울스포츠 대제전의 막이 오르게 됐다. 아시아에선 1998년 제18회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3 = 한국은 역대 동계올림픽에 출전해 총 3종목에서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다. 효자종목인 쇼트트랙에서 19개와 스피드스케이팅에서 3개, 피겨스케이팅에서 1개를 획득했다. 공교롭게도 모두 빙상 종목에 속한다. 이 밖의 종목에선 동메달조차 딴 적이 없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선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스켈레톤 윤성빈이 설상 종목 최초로 금메달 상상에 도전한다.

4 =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은 종합 4위를 목표로 삼았다. 금메달 8개를 포함해 전 종목에 걸쳐 총 20개의 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포부다. 한국은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순위 5위를 차지했다. 안방인 평창에선 밴쿠버 때보다 금메달 2개를 더 추가해 한 단계 순위 상상을 꿈꾼다.

23 = 평창동계올림픽은 23번째 동계올림픽이다. 첫 대회는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열렸다. 24번째 동계올림픽은 2022년 베이징에서 열린다.

102 =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선수들에게 돌아갈 금메달의 수다. 역대 최다인 102개 세부 종목에 치른다. 전 세계 92개국에서 2925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사상 최대 규모로 펼쳐지는 이번 대회의 명성에 걸맞게 더욱 많은 선수들이 금빛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전망이다.

118 = 자타공인 겨울 스포츠 최강국으로 꼽히는 노르웨이는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통산 118개의 금메달을 얻었다. 노르웨이는 직전 대회인 2014소치올림픽에서도 금메달 1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1위에 올랐다.

169 = 조직적 도핑으로 논란을 일으킨 러시아에선 169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이들은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며, 유니폼에 자국기 대신 오륜기를 달고 경기에 나서야 한다. 출전 종목에서 우승을 해도 러시아 국기 대신 오륜기가 오른다.

서대원 기자 seody3062@donga.com

평창조직위,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약속

6일에도 강원도 평창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이어졌다. 아직 공식경기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추위와 싸우며 올림픽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의식지원, 보은, 위생, 수송, 숙소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과 부당한 처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 일부는 중도포기 의사를 내비치며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에 처우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6일 평창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수송, 식사 등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지난 2주 동안 간식과 음료 등 여러 개선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간지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특성상 하계 대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원봉사자를 위한 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한 최근 민간 보안업체 직원들의 숙소에서 노로 바이러스 추정 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런 일이 발생해 위원장으로 죄송하다. 해당 숙소를 사용한 1200명을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임상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수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방한대책 등은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유니폼으로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평창의 혹한에서 버틸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우수한 보온력으로 인기가 높은 통 패딩을 직접 구매해서 입고 싶어 했지만 조직위는 시각적 통일성을 위해 허락하지 않고 있다.

평창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11번째 공동입장은 ‘남남북녀’ 차례 北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기수 후보

남북단일팀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 중 한명이 9일 열리는 개막식의 남북공동입장 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사상 최초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했다. 당시 대한민국 기수는 여자농구 대표 정은순이었다. 북한은 정은순의 큰 키(185cm)에 맞추기 위해 선수단에서 가장 키가 컸던 남지유도 박정철 감독(약 180cm)을 선정했다. 남북은 시드니올림픽에서 ‘남녀북남(男女北南)’ 공동기수로 처음 함께 한 이

후 ‘남녀북남’과 ‘남남북녀’를 교대로 기수를 선정해왔다. 역대 공동입장은 총 10차례였고 모두 이 관례를 지켰다. 11번째 공동입장인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남북녀’ 순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국가대표 봅슬레이의 기동 원운송(33·강원도청)을 개막식 ‘남남’ 기수로 선정했고 북한의 ‘북녀’ 기수 최종 낙점을 기다리고 있다.

체육계는 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 중 한명을 기수로 선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5개 종목 22명의 선수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다. 이중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가 12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평창 | 이경호 기자

편진 | 인도영 기자 do02@donga.com